우암학원 창학67주년
광주의 새로운 명문대학교
남부대학교
NAMBU UNIVERSITY

光州日報

www.tphtoyota.com
BEYOND POSSIBLE.
BEYOND PLEASURE.
SMART HYBRID
4th GENERATION PRIUS
TOYOTA
광주전시장 062-371-8383 | 전주전시장 063-273-3222

1952년 4월 20일 창사 대표전화 (062)222-8111 kwangju.co.kr 제20814호 1판 (음력 7월 3일) 2018년 8월 13일 월요일

후보들 강점 내세워 3인 3색 표심잡기

/ 뉴 스 초 점 / 반환점 돈 민주당 8·25 전당대회

권리당원 27% 호남민심 변수

반환점을 돈 더불어민주당 8·25 전당대회가 송영길·김진표·이해찬 후보(기호 순) 간 혼전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이 후보 측은 대세론을 이어가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송·김 후보가 치고 올라가면서 서로 우세를 주장하고 있는 형국이다.

12일 민주당 안팎에서는 당 대표 경선 판세를 혼전으로 보는 시각이 일반적이다. 지난 3일부터 전국 시·도당 대의원대회 합동연설회가 시작되면서 이른바 '이해찬 대세론'이 답보상태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송·김 후보의 상승세가 두드러지고 있다는 평가다. 여론조사 결과도 엎치락뒤치락이다.

여론조사전문기관 '알앤써치'가 지난 6~7일 실시한 조사 결과, 이 후보는 당대표 적합도에서 22.0%를 기록했고 송 후보는 20.4%, 김 후보 19.9%였다. 민주당 당원 조사에서도 김 후보 24.5%, 송 후보 24.1%, 이 후보 21.5%로 경합을 벌였다. 전주보다 송·김 후보는 각각 8.9%p, 2.6%p가 상승한 반면 이 후보는 4.0%p 하락했다. 이 조사는 전국 성인남녀 1205명(가중 1200명)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RDD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의 신뢰수준에 ±2.8%p다.

반면, 리얼미터가 지난 9일 실시한 민주당 당 대표 후보 지지도 조사(95% 신뢰수준에서 표본오차는 ±2.2%p)에서는 이 후보가 31.8%의 지지율로 1위였다. 김 후보는 22.4%, 송 후보는 21.6%였다. 민주당 지지자 조사(표본오차는 ±3%p)에서도 이 후보는 38.5%를 얻어 22.3%의 송 후보, 21.4%의 김 후보를 앞섰다. 이 조사는 전국 성인 2012명을 대상으로 무선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또 지난 10일 1013명을 대상으로 알앤써치가 실시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는 ±3%p)에서는 김 후보 21.0%, 이 후보 20.2%, 송 후보 18.6%로 나타났다.

이 같은 혼전 양상 속에 송 후보 측은 호남 표심을 잡으며 '돌풍' 가능성이 있다고 밝히고 있으며, 김 후보는 본인의 강점인 경제 전문가 이미지와 권리당원 강세에 기대를 걸고 있다. 이 후보는 친문 세력을 결집시키며 기세를 올리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송 후보는 유세 현장에서 연설에 능해 당원의 호응을 가장 많이 얻고 있다고 분석되고 있다. 특히 지난 4일 광주시당 개편대회에서 송 후보의 연설은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송 후보 측 관계자는 "호남 민심이 송영길로 점차 쏠리고 있다"며 "호남에 뿌리를 둔 대의원 비율은 전국에서 40%에 달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호남 권리당원의 비율은 27%로 서울(21%) 경기(20%)보다 높다. 여기에 송 후보측은 최근 10년간 호남 출신 당 대표가 없었던 만큼 유일한 호남 출신인 송 후보가 세를 모아 가고 있다는 주장이다.

김 후보는 권리당원에게 인기가 높아 승리 가능성이 크다는 주장이다. 이번 전당대회룰에서 40%의 비중을 차지하는 권리당원에서 1위를 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는 것이다. 친문 온라인 커뮤니티, 권리당원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등을 중심으로 김 후보를 향한 집중적인 지지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당내 큰 조직을 갖고 있는 정치인들의 지지가 두드러진다는 분석이다. 나아가 경제가 나쁜 상황에서 경제전문가 이미지가 결국은 김 후보의 최대 강점으로 부각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 후보 측에서는 결과를 자신하는 분위기다. 특히 민주평화당 전대에서 정동영 의원이 대표가 되고 바른미래당에서 '손학규 대세론' 분위기가 감지되면서 이 후보가 우위를 굳힐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른바 '올드보이 컴백' 기류가 이 후보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는 것이다. 또 최근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에 따라 위기감이 높아지면서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하다는 분위기가 형성된 것도 호재다.

/박지경 기자 jkpark@kwangju.co.kr

800여 마라토너 폭염 속 뜨거운 질주

광주일보가 주최한 광복절 기념 제4회 너릿재 옛길 혹서기 마라톤대회가 12일 오전 전남 화순 너릿재 일대에서 열렸다. 대회에 참가한 전국 800여명의 마라토너들이 출발신호와 함께 너릿재 옛길을 달리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광복절 기념 제4회 너릿재 옛길 혹서기 마라톤 대회 성료

푹푹 찌는 폭염도 건각들의 질주를 막을 수는 없었다. 〈관련기사 7·18면〉

무더위와 험난한 코스에 지칠 법도 했지만 끝내 완주해 낸 이들의 환한 얼굴에는 '해냈다'는 성취감이 깃들어 있었다.

제 73주년 광복절 기념 제4회 너릿재 옛길 혹서기 마라톤대회가 12일 오전 전남 화순과 광주 동구를 잇는 너릿재 옛길 구간에서 열렸다.

광주일보사와 마라톤세상이 공동 주최한 이번 대회는 화순 소아르 갤러리 주차장에서 출발해 너릿재 정상을 거쳐 광주 동구 너릿재 주차장을 돌아오는 코스로 진행됐다.

개회선언에 이어 김여송 광주일보 사장의 대회사로 막이 오른 이번 마라톤 대회는 5회 왕복하는 풀코스(42.195㎞)와 3회 왕복하는 25㎞코스, 1회만 다녀오는 8.5㎞ 코스로 나뉘어 치러졌다.

올해로 4회째를 맞은 너릿재 마라톤대회는 경주 구간이 과거 화순에서 광주를 오가는 옛길의 모습과 자연의 풍광들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어 전국의 마라톤 애호가들에게는 '반드시 참가해야 하는 여름대회'로 명성을 높이고 있다.

애호가들은 녹음이 짙게 물든 편백숲길 사이를 깊고 가쁜 숨을 몰아쉬며 내달리기에 피톤치드가 인체에 자연스레 흡수되는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번 대회에는 사전접수 700여명과 현장접수 100여명을 더해 총 800여명의 마라토너들이 신록이 우거진 숲길을 내달렸다.

김여송사장은 대회사에서 "4회째를 맞는 대회지만 전국의 많은 동호인들이 참가하는 열의가 대단히 감격스럽다"며 "3·1절 마라톤을 53회 동안 치르며 쌓은 경험을 발판 삼아 너릿재 마라톤 또한 더욱 내실있는 대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지금보다 과감한 지방분권 필요하다"

김병준 한국당 비대위원장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방분권 추진과 관련, "지금보다 과감한 분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인터뷰 5면〉

김 위원장은 지난 9일 국회 한국당 비대위원장실에서 가진 광주일보 등 한국지방신문협회 소속 9개 신문사와 공동인터뷰에서 "중앙집권체제냐 지방분권체제냐 답이 없으면 권력을 주인 가까이 돌려주는 지방분권체제로 가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어 "설사 지방에서 권한을 잘못 활용한다 하더라도 자연적으로 해결책이 나올 것"이라며 '선 분권, 후 보완' 원칙을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의 국가 운영에 대해 "부정적"이라고 단언한 뒤 "국가주의에서 벗어나 자율주의 정신에 입각한 성장모델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은 임금주도성장을 차용하고 있는 것으로 수출주도형인 국내 상황과 맞지 않다"면서 "경제 뿐만 아니라 대북 정책과 외교 안보 등에서 문재인 정부가 잘못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기초단체장 정당 공천에 대해선 책임정치 차원에서 "공천제 유지"를, 교육감 직선제에 대해선 "교육 자치와 행정자치의 통합을 고민할 때"라며 사실상 직선제 폐지를 각각 주장했다.

아울러 당내 계파 갈등이 해소됐느냐는 질문에는 "공천제도 개혁을 통해 더이상 계파가 존재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지경 기자 jkpark@kwangju.co.kr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 605-1114 대학원 605-1115

Introducing GLC 350 e 4MATIC
#switchtoEQ
GLC 350 e 4MATIC 출시!
탁월한 퍼포먼스와 놀라운 연비를
동시에 실현한 메르세데스-벤츠의 e-Mobility.
메르세데스-벤츠 공식딜러 신성자동차에서 경험하세요!
Mercedes-Benz
신성자동차
광주 전시장 (062)226-0001 & 화정 서비스센터 (062)376-2557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1041(화정동)
소촌 서비스센터 (062)942-7200 광주광역시 광산구 어등대로 603번길 20 (소촌동)
수완 서비스센터 (062)961-0090 광주광역시 광산구 임방울대로 520(수완동)
정부 공인 표준 연비 및 등급
GLC 350 e 4MATIC (배기량: 1,991cc, 공차중량: 2,120kg, 자동7단), 복합휘발유모드 연비 (CS연비): 9.7km/ℓ (도심연비: 9.1km/ℓ, 고속도로연비: 10.6km/ℓ), 복합전기모드 연비 (CD연비): 2.3km/kWh (도심연비: 2.0km/kWh, 고속도로연비: 2.6km/kWh), 복합CO_2 배출량: 92g/km, 1회 충전 주행거리: 15km
※ 본 연비는 표준모드에 의한 연비로서 도로 상태, 운전 방법, 차량 적재 및 정비 상태 등에 따라 실주행 연비와 차이가 있습니다.
※ 상기 제품 이미지는 국내 사양과 다를 수 있습니다.